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세번째 결실 맺다

2017 남원시정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숙담을 확인한 한 해였다.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남원시 전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흔들림 없이 '미래로 도약하는 새 희망 남원' 건설에 매진했다. 그 결과 민선6기 이환주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3번째 결실인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가 완공돼 바이오화장품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돼 3년 동안 국비 16억원을 확보했다. 결정사다.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의 연구기반과 의지, 연구주체의 독창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시민의 숙원인 옛 남원역사를 매입해 남원읍성 복원을 본격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강·사매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14개 사업에 192억 원을 확보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민선 출범 22년만에 지방채없는 도시도 이뤄냈다.



지난달 29일에 열린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준공식.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한 이환주 시장(왼쪽).

바쁘게 움직인 만큼 성과도 많았다. 이환주 시장이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했다. 시민과 함께 모범행정을 펼친 평가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또, 지리산권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 구축,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개발, 서울에향정학숙 운영, 광치천 친환경 생태하천조성,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등을 지역 발전과 지역혁신 모범으로 꼽았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국무총리상, 2017 전통문화도시 대상, 친환경농업 기반사업 평가 대상, 아영 포도가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 상수도사업소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생산성우수 추경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17년을 빛낸 남원시정의 분야별 주요 성과를 알아본다.



이영면 포도따기 현장체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우수상 수상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4년차를 맞은 문화도시 사업은 소리(Sound)를 주제로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역점을 두었다.

여기에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함파우 유원지를 연계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권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개발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함파우소리체험관은 보고, 듣고, 체험하는 오감만족 문화체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총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부지 7,819㎡에 제 1, 2, 3 전시실과 수장고, 북카페 등을 갖췄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는 김 교수의 그림 400점과 화집·전적류 5,000점이 기증 전시될 예정이다.

전통문화체험단지, 예촌길, 고생지구 추억의 거리조성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도심권 관광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리산 산악관광 권역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유형시설과 함께 지리산 허브밸리를 연결하는 동부권 산악관광 벨트 완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

1500여 년의 긴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운봉가야의 타임캡슐인 유곡·두라리 고분군은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리산 웰빙 허브 산업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3,500만 원을 받았다.

지난 8월 개관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인 예로룻지&캠핑장은 연인, 가족, 단체 탐방객들의 힐링명소로 부상했다.

▲기초체력 확인한 농업

2017년은 남원농업의 경쟁력을 확인한 한해였다. 먼저, 4년차를 맞은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이 8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같은 매출 신장은 남원농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소비자들의 인지도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리산 고랭지에서 생산돼 맛이 좋기로 이름난 춘향비대봉 파프리카는 2017년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비대봉 파프리카는 올해 110억원의 조수익이 기대되는 효자 작목이다.

남원 쌀 대표 브랜드 남원참미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도를 획득해 안전성을 입증 받는 성과를 거뒀다.

친환경농업 기반사업 평가에서도 대상을 받아 인센티브로 사업비 9억원과 시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남원시는 올해 친환경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36억 원을 지원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농기계 교체사업비 2억 원을, 남부농업조합원은 2018년도 고품질쌀 생산 사업다각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 5억 2,000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 남원시는 이백, 금지, 인월, 사매 4곳에 63종 68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에 임대하고 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5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연계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의 특화사업인 미꾸리 양식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시군청의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3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남원시는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무환수 미꾸리 대량양식 기술개발에 매진할 계획이 있다.

시립김병종미술관 구축 등 도심권 문화예술 거점공간 개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가족들의 힐링명소로 부상

11개 읍면동에 복지차량 보급 남원우체국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

바이오가스화시설로 환경보호 실천

1. 시립김병종미술관
2.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3. 지난달 27일 열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
4.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



▲창의적 인재육성- 현장 밀착 복지 실현

청소노동의 오랜 꿈인 청소년수련관과 시립도서관 건립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과 시립도서관은 내년에 완공해 청소년들의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시내권 7개 고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한다. 이로써 남원시내 관내 77개교 초·중·고교 학생 9,800여명 전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청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간담회와 5일장 희망복지 상담도 꾸준히 추진해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챙겼다.

15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11개 읍면동에는 복지차량을 우선 보급했다. 복지차량은 현장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복지체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나머지 8개 읍면동에도 맞춤형 복지팀을 조직하고 복지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실정에 밝은 남원우체국 집배원, 한국전력 남원지점 검침원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희망동행 구성원으로 위촉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여성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알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 고향 가족에게는 의약품과 생필품을 보내 사랑을 전달했다. 친정 보내주기 사업도 인기에 진행했다. 올해는 127구가 친정과 처가, 외갓집을 각각 다녀왔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호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다. 시내버스 호출 서비스는 빈차 운행을 막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700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리시범사업과 시가지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다. 270여원이 소요되는 내년도 3단계 하수관 정비사업도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이 완성되는 2022년에는 한 단계 더 쾌적한 그린시티 남원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건강과 행복향상이라는 경영전략을 실천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는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와 예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길로 조성하고 있는 예가람길은 행정자치부가 공모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옛 KBS방송국은 다양한 문화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는 복합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부에 음식물 쓰레기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화시설을 준공해 연간 3억원의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이밖에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과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으로 정비하는 고품질하천 사업에 국비 1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완공되면 친환경 기업 45개 업체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